



‘중심은 있었지만, 균형은 무너졌다’

KIA 2025 시즌 결산

〈7·完〉엇박자가 빚어낸 디펜딩 챔피언의 몰락



2025시즌 KIA 타이거즈의 야구는 확실한 중심이 있었다. 타선은 장타력을 앞세웠고, 선발진은 꾸준히 버텼다. 그러나 팀 전체의 호흡은 끝내 맞지 않았다. 결정력이 떨어졌고, 불펜과 수비가 무너졌다. 전력 구성은 탄탄했으나, 운용 효율이 낮았다. 공격력부터 엇박자가 심했다. 홈런 144개로 리그 2위, SLG 0.399로 상위권. 표면적인 수치는 화려했다. 그러나 찬스에서 방망이는 무뎠다. 득점권 타율(0.250)은 리그 최하위, 팀 WPA(승리기여도)도 7위다. 장타는 단발성에 그쳤고, 타선의 연결력도 부족했다. ‘한방은 있었지만, 결정력이 없

었다’. 이 한 줄이 2025 KIA 타선의 진단서였다. 그나마 선발진은 팀의 버팀목이었다. 내일·올리의 탄탄함, 김도현·김태형의 성장으로 경쟁력은 유지됐다. 후반기 막판 부상 악재로 균열이 있었지만, 끝까지 버텼다. 문제는 뒷문이었다. 불펜이 제구 난조 속에 안정감을 잃었다. 시즌 ERA 5점대(리그 9위), WHIP 1.55로 부진했다. 리그 두 번째로 많은 불론제이브(2회)도 빼어났다. 운영의 판단 착오와 마무리 불안이 겹치며 패배로 직결됐다. 버티는 힘은 있었지만, 막아내는 힘이 약했다. 수비 허점도 마운드 부담을 가중시켰다. 유격수와 포수가 중심을 잡았으나, 팀 전체 수

화려한 수치의 그늘, “한방 있었지만, 결정력은 없었다” 선발진 고군분투·불펜 난맥상 “버텼지만 막지 못했다” 뎀질 치방 수비진…‘작은 야구’ 실종 경기력·전술 낙제 끝까지 남은 건 팬심…‘2년 연속 100만 관중 돌파’ 위안

비는 흐트러졌다. 실책 123개, 수비율 0.977로 지표가 리그 최하위다. 내야는 조합이 불안정했고, 외야는 커버 라인 이 느슨했다. 취약한 수비 시스템이 시즌 전체의 리듬을 깨뜨렸다. 마운드가 버텼어도 잦은 실책이 경기 흐름을 끊었다. 시즌 내내 팀 분위기를 흔드는 결정적인 변수였다. 벤치 작전도 한계를 드러냈다. 데이터와 현장의 간극이 컸다. 대타 기용에서는 성과가 뚜렷했다. 대타 타율

리그 1위, 10개 구단 중 유일한 3할대다. 그러나 불펜 교체 시점, 후반 투수 운용에선 유연함이 떨어졌다. 도루와 주루 작전 역시 활기를 잃었다. 도루 시도율과 추가 진루 성공률이 리그 8위에 머물렀다. 한 점을 쥐어짜는 ‘작은 야구’가 작동하지 않았다. 비디오관독에서도 다소 뒤쳐졌고, 세밀한 타 이밍 판단이 아쉬웠다. 이처럼 KIA는 경기력과 운영 모두에서 흔들

림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관중석은 식지 않았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2년 연속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관중이 줄었지만, 온도는 뜨거웠다. 순위 경쟁이 끝난 뒤에도 주말 평균 1만5천 명 선을 지켰다. 가을야구가 멀어진 뒤에도 팬들은 결과보다 동행을 택했다.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한 응원엔 KIA 야구의 마지막 힘이였다. 숫자보다 마음이 더 큰 시즌이었다. 결국 2025시즌 KIA는 중심이 있었지만, 조화가 깨진 해였다. 디펜딩 챔피언의 안도감, 그리고 세부 완성도의 결핍이 맞물렸다. 올해 KIA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하다.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 야구는 된다’. 내년의 과제는 흐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주홍철기자



27일 영광 스포터움에서 열린 제37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 폐회식에서 입상상 등을 수상한 시군 대표들이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과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화순군, 입장상 최우수상·줄다리기 1위 ‘영예’

“내년 장성에서 다시 만나요”…제37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 폐막



전남 생활체육인들의 화합한마당 축제인 ‘제37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이 27일 영광 영광스 포터움에서 3일간 열전을 뒤로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무쳐라 전남의 힘, 천년의 빛 영광에서’ 구호 아래 열린 이번 대축전에는 도내 22개 시·군 6천70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해 24개 종목(정식 23, 민속 1)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지난 25일 개회식에서 종이 꽃 마스크로 인간 꽃을 형상화해 고인돌가을꽃축제를 홍보하

며 입장한 화순군이 입장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목포시·나주시·보성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 장려상은 순천시·완도군·진도군이 수상했고 스포츠730상은 장성군에게 수여됐다. 참여상인 화합상은 광양시, 질서상은 담양군, 응원상은 장흥군, 감투상은 구례군, 우수회원종목단체상 전남공도협회가 선정됐다. 시·군 대항전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 종목별 경기 결과 광양시와 화순군, 신안군이 각각 3개 종목에서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민속경기 줄다리기는 화순군이 영예

의 1위를 차지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생활체육인들이 한데 모여 열정과 화합으로 만들어낸 이번 대축전은 도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었다”며 “참가한 모든 선수와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영광에서 열린 이번 대축전이 전남 3대 종합체육대회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했다”며 “전남도체육회는 앞으로도 전남도와 함께 도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전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회기와 패นต์기는 자기 개최지 장성군에 이양됐다. /박희중기자

북성FC, 전국중등 1학년 축구페스티벌 1위

북성FC(중등) 축구부가 지난 24~25일 충남 보령스포츠파크 일대에서 열린 ‘2025 만세보령 마드배 전국중등(1학년) 축구페스티벌’ 대회에서 4전 전승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축구협회가 승인하고 충남 축구협회가 주관한 공식 대회로 전국 32개팀, 600여명의 중등 1학년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광주대표로 출전한 출전한 북성FC U-15팀은 그 동안 갈고닦은 기량과 조직력을 발휘해 유수한 강팀들 속에서 4전 전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1차 풀리그전 결과에 따라 동순위별 1위 결정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북성FC는 1차 풀리그전 결과 각각 2대1, 1대0, 3대1로 G조 1위(3승)를 기록했다. 이어 마지막 날인 27일 만난 H조 1위(3승) 충남아산시축구협회 중등팀과의 경기에서 한수위 기량으로 5대2라는 대승을 거뒀다. 황인성 북성FC 감독은 “이번 대회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며 준비해왔던 선수들, 그리고 물



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부모님들께 감사하다”며 “북성FC에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유망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조선대 세터 박인우, OK저축은행 낙점

KOVO 신인드래프트…‘고교 빅3’ 순천제일고 이학진, KB손보행

조선대 세터 박인우(사진)가 OK저축은행 유니폼을 입었다. 박인우는 27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2025-2026 한국배구연맹(KOVO)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순위로 OK저축은행 낙점을 받았다. 순천제일고 시절부터 세터로 두각을 나타내며 2025 한국대학선발팀 주전 센터로 활약한 박인우는 키 190cm의 공격형 장신 세터다. 탁월한 경기 운영과 탄력있는 점프력을 앞세운 블로킹, 수비 능력이 뛰어나 일찌감치 실업 무대의 주목을 받았다. 올해 조선대의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 우승, 단양 대회 준우승 주역으로 맹활약한 박인우는 고성대회 최우수세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날 드래프트에서는 남자 프로배구 차세대 에이스 재목감인 ‘고교 특급’ 아웃사이드 히터 방강호(제천산업고)가 전체 1순위로 한국전력



의 유니폼을 입었고, 해외파 이우진(전 이탈리아 문차)은 2순위로 삼성화재의 낙점을 받았다. 방강호(1라운드 1순위), 이준호(1라운드 5순위-대한항공)와 함께 고교 빅3로 꼽힌 리베로 이학진(순천제일고)은 2라운드 1순위로 지명돼 KB손해보험에 등지를 틀게 됐다. 드래프트 순서는 지난 시즌 최종 순위 역수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한국전력이 1순위 지명권을 얻었고, 삼성화재(2순위)-OK저축은행(3순위)-우리카드(4순위)-대한항공(5순위)-현대캐피탈(6순위)-KB손해보험(7순위) 순으로 결정됐다. /박희중기자

안세영, 42분 만에 프랑스 오픈 제패

올해 9번째 국제대회 우승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프랑스오픈을 제패하고 올해 아홉번째 국제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지난 26일 프랑스 세송 세비네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프랑스오픈 4강에서 중국의 왕즈위(2위)를 2-0(21-13 21-7)으로 제압했다. 안세영이 프랑스오픈 정상을 밟은 건 2019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가 3번째다. 전날 열린 준결승에서 8분의 혈투 끝에 ‘천적’ 천위페이(5위·중국)를 2-1(23-21 18-21 21-16)로 꺾은 안세영은 그 기세를 몰아 이날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 이날 승리로 안세영은 왕즈위를 상대로 15승 4패를 기록했다. 올해 다섯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안세영이



이겼다. 안세영은 지난 14일-19일 덴마크 오픈세에서 진행된 BWF 월드투어 슈퍼 750 덴마크오픈을 제패한 지 이틀 만에 이 대회에 참가했다. 약 2주간의 유럽 원정에서 2개의 금메달을 연달아 목에 건 안세영은 올해 총 13개 국제 대회에 참가했으며, 그중 9개 대회에서 정상을 올랐다. /연합뉴스